

■ “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통해 본 우리산업의 고용창출능력”
(김용현 연구원)

-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흡수여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.

※ 1985~1990년의 취업계수 63.5(명/10억원), 2000년 취업계수 39.8, 2004년의 취업계수는 32.7로 하락하고, 고용탄성치(=취업자증가율/GDP증가율)는 2003년 -0.04, 2004년 0.47을 기록

-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흡수 여력이 제조업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, ‘고용없는 성장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 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육성
성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

※ 고 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관련 사업서비스업과 관광, 의료, 교육, 문화 같은 사회서비스업을 의미

문의처 :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김용현 연구원

Tel : 783-7155 E-mail : yhk08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통해 본 우리산업의 고용창출능력

담당자	김용현 연구원
전화	02)783-715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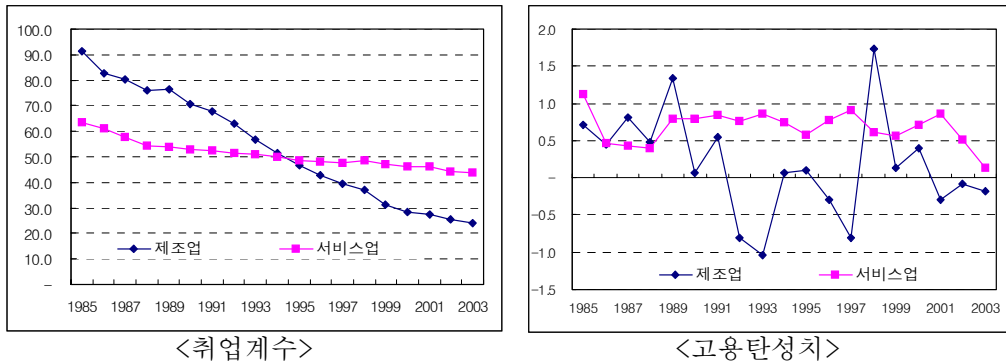
1.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창출능력 평가

-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서비스업으로 재편되고 있지만,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비중은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.
 - 2002년 기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63.3%로 74~75%대인 호주, 프랑스, 스웨덴, 미국 등 OECD 국가들 보다 낮은 수준이며, 일본(64.8%), 독일(65.0%)보다도 낮은 수준임.
-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전반적인 고용흡수역력은 낮아지고 있음.
 - 취업자 대비 실질 GDP를 나타내는 취업계수(=취업자/GDP)는 1985~1990년 평균 73.5(명/10억원), 1991~1996년 47.0(명/10억원), 1997~1999년 39.8(명/10억원)로 하락하였고, 2004년은 32.7(명/10억원)까지 감소
- 우리경제의 '고용없는 성장'의 징후가 발견되고 있음.
 -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(=취업자증가율/경제성장률)는 2003년에 -0.04(경제 성장률이 1%증가할 때 고용은 0.04% 감소)를 기록
 - 2004년 고용탄성치는 0.47(경제성장 1%증가 할 때 취업자는 0.47% 증가)로 회복되었지만, 이것은 실물경제 호조에 기인하기 보다는 2003년의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율에 대한 반등작용 혹은 정부의 단기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인한 저숙련 취업자의 증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큼.
 - 위의 가능성과 2005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(4.0%)을 고려할 경우 우리경제의 '일자리 창출을 수반한 경제성장'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.

- 산업별(제조업과 서비스업) 취업계수를 살펴보면, 서비스업과는 달리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급강하하는 추세를 보여주며, 1995년 중반을 기점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(그림 1 참조).

[그림 1]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추이

(단위: 명/10억, 탄성치)



2. 고 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

- 자동화 등으로 고용흡수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만을 가지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,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일정 정도 한계에 도달
 - 일자리 부족현상과 청년층 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수없이 많고 다양한 서비스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며,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산업전략이 필요
 - 최근(2004년)의 일자리 창출이 저 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업에서 일어났지만 여기서도 고용흡수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, 향후 일자리 창출과 내수 회복을 동시에 거둘 수 있고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대체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
 -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흡수력과 일자리 창출이 높은 고 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정보통신 관련 사업지원서비스업(Producer Services), 관광 의료 교육 문화와 같은 사회서비스업(Social Services)부문임.